



## 특집—“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

정재곤·채석진·김경화·장이지·김정하·김형중·이소·조강석

『스름-문학의 이름으로』 제14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53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 “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 전문지 『쑈-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4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이다. 우리의 일상은 현재 신경증 혹은 신경증적 질환인 불안과 강박으로 만연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떤 근본적 현상에 대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인식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다양한 렌즈를 통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특집의 앞자리에서는, 사회과학적 분석이 세 편의 글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다음 다섯 편의 글은 오늘의 문화, 특히 영화와 문학을 통해 표출되는 불안과 강박의 구체적 양상들을 다룬다.

1. 사회화된 변태성 “권위의 실종”을 중심으로 | 정재곤(프랑스문학자·정신분석학자)
2. 도시 공간, 감시 카메라, 젠더화된 불안과 혐오 | 채석진(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 편재하는 스크린을 향한 강박\_스마트폰과 촉각의 문화 | 김경화(전 일본 칸다외국어대학 교수)
4. 훼손된 세계의 완강함과 무력한 주체의 분노\_좋은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 영화 속에서 | 장이지(제주대 국문과 교수)
5. 인종적 우울과 미메시스\_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문제 제기 | 김정하(서울대 영문과 교수)
6. PTSD와 ICD\_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어떤 ‘증상’들 |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
7. 제주에서 보낸 한철\_한강·조해진·김금희의 장편소설과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 이소(문학평론가)
8. 엔드게임과 양식사적 우울\_정한아·김미령·안희연의 시를 읽으며 | 조강석(연세대 국문과 교수)

##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불안과 강박의 증상과 글쓰기

1. 옛날에 대하여 | 김선재
2. 우리 시대(혹은 내면)의 불안과 강박(신경증)\_이데올로기의 장기 (부채) 사이클 | 김종욱
3. 오늘의 윤슬, 오늘의 패배, 오늘의 꽃병과 노동 | 김지녀
4. 0은 빛을 잡아당겨 만든 작은 고리였다 | 백은선
5. 청년 세대의 현실과 감정 | 윤병무

## 시시비비—가짜 뉴스와 음모론: 세속화 시대의 ‘종말의 환영’

주요한 사회적 쟁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시시비비> 난에, 박진우 씨가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뒤덮인 공론 장의 문제에 대한 진중한 점검의 글을 보내주었다. 특집 주제와도 무관치 않을 이 글의 필자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단순히 공론 장의 오염으로 단죄하려 들기보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나온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한다.

## 작은 기획—디지털 인문학 입문

<작은 기획>으로는, 인문학에서 점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글쓰기와 읽기의 양상 자체를 바꾸어놓는 근본적인 차원의 방법론적 혁신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본다.

1. 쓰기 테크놀로지의 진화, 디지털 인문학 | 류인태
2. 디지털 인문학의 인문학적 지평: 리터러시의 확장 | 김희정
3. 디지털 인문학의 형성\_‘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공동체 | 클레망 베르트-에흐볼 & 루이스 헤이예스-갈린도 / 손정훈 옮김

##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난에서 재조명하는 작품은 오정희의 『유년의 뜰』이다. 김예림 씨가 새로운 읽기 시도를 통해 오정희 소설이 보여주는 “밀도 높고 치밀한 상징”의 그물 속에 걸어 올려진 의미를 제시한다.

## 지금 이 언어

새로 발표된 작품의 의미를 가늠해보는 <지금 이 언어> 난에는, 우리 시단의 대표적 중견 시인인 함성호·강

정·신용목 씨의 근간 시집들에 대한 평론과, 활기찬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진 소설가 서이제·신종원·한정현 씨의 첫 소설집들에 대한 평론이 마련되었다. 유성호 씨가 시집들 속에서 “서정시의 갱신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이은지 씨는 “아카이브적 서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젊은 소설가들의 소설 속에서 실제 현실과 다른 질서가 출현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 시와 소설+텍스트 실험 공간

이번 호 창작 난에서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다채롭게 펼쳐지는 김혜순·송승환·신해욱·박세미 씨의 시편들과 최제훈·문진영·김수온·강대호 씨의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 <텍스트 실험 공간>에 수록된 시인 기혁 씨의 작품 또한 풍성한 문학적 실험 정신의 향연을 제공한다.

---

### 차례

#### 특집: 이 시대의 불안과 강박

1. 사회화된 변태성 “권위의 실증”을 중심으로 | 정재곤
2. 도시 공간, 감시 카메라, 젠더화된 불안과 혐오 | 채석진
3. 편재하는 스크린을 향한 강박 스마트폰과 촉각의 문화 | 김경화
4. 훼손된 세계의 완강함과 무력한 주체의 분노\_좋은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 영화 속에서 | 장이지
5. 인종적 우울과 미메시스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문제 제기 | 김정하
6. PTSD와 ICD 1990년대 이후 한국 소설의 어떤 ‘증상’들 | 김형중
7. 제주에서 보낸 한철\_한강·조해진·김금희의 장편소설과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 이소
8. 엔드게임과 양식사적 우울\_정한아·김미령·안희연의 시를 읽으며 | 조강석

#### 특집과 함께

1. 현장의 목소리: 불안과 강박의 증상과 글쓰기
2. 옛날에 대하여 | 김선재
3. 우리 시대(혹은 내면)의 불안과 강박(신경증)\_이데올로기의 장기 (부채) 사이클 | 김종욱
4. 오늘의 윤슬, 오늘의 패배, 오늘의 꽃병과 노동 | 김지너
5. 0은 빛을 잡아당겨 만든 작은 고리였다 | 백은선
6. 청년 세대의 현실과 감정 | 윤병무

#### 시시비비

- 가짜 뉴스와 음모론\_세속화 시대의 ‘종말의 환영’ | 박진우

#### 시와 소설

- ‘DEUS EX MACHINA’를 위한 변론 | 강대호
- 새와 깃털 | 김수온
- 모음의 이중생활 외 2편 | 김혜순
- 너무 늦지 않은 어떤 때 | 문진영
- 표면으로 낙하하기 외 2편 | 박세미
- 다이빙 I 외 2편 | 송승환
- 할머니들 이마가 아름다운 할머니들 외 2편 | 신해욱
- 두고 온 사과 | 장현
- 스포일러 | 최제훈

#### 텍스트 실험 공간

- 디데이 | 기혁

#### 작은 기획 : 디지털 인문학 입문

1. 쓰기 테크놀로지의 진화, 디지털 인문학 | 류인태
2. 디지털 인문학의 인문학적 지평: 리터러시의 확장 | 김희정
3. 디지털 인문학의 형성\_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공동체 | 클레망 베르트-에흐볼 & 루이스 헤이예스-갈린도 / 손정훈 옮김

#### 그때 그 실험

- 상실과 결여의 문턱에서\_오정희의 『유년의 뜰』이라는 은화銀畵 | 김예림

#### 지금 이 언어

- 타자성을 품은 시적 존재론의 트라이앵글\_함성호·강정·신용목의 근간 시집들 | 유성호
- 편집과 연출 | 아카이브 서사의 가능성과 한계\_서이제·신종원·한정현의 첫 소설집들 | 이은지

##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 형, 다시 11월입니다\_성기완 시집 『11월』 | 황유원
- 미로의 악의, 미로의 중심\_강대호 연작소설집 『스핀오프』 | 김대산

## 이번 호 필자

강대호 | 소설가.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20년 『쑈-문학의 이름으로』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스핀오프』를 펴냈다.

기혁 | 시인·문학평론가. 197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시인세계』를 통해 시인으로,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여, 시집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기립 박수』 『소피아로렌의 시간』을 펴냈다.

김경화 | 인류학자. 1971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대학원 학제정보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칸다외국어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세상을 바꾼 미디어』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 『경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를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선재 | 시인·소설가. 1971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2006년 『실천문학』을 통해 소설가로, 2007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얼룩의 탄생』 『목성에서의 하루』, 소설집 『그녀가 보인다』 『어디에도 어디서도』 『누가 뭐래도 하마』, 장편소설 『내 이름은 솔래』 『노라와 모라』를 펴냈다.

김수은 | 소설가. 1994년 광주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한 폭의 빛』을 펴냈다.

김예림 | 문학평론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문학 풍경, 문화 환경』 『국가를 흐르는 삶』 등의 연구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정하 | 영문학자.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비교문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비교문화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종욱 | 소설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과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펴냈다.

김지녀 | 시인. 197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시소의 감정』 『양들의 사회학』 『방금 기이한 새소리를 들었다』를 펴냈다.

김형중 | 문학평론가.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소설과 정신분석』 『켄타우로스의 비평』 『변장한 유토피아』 『단 한 권의 책』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후르비네크의 허』와 산문집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 무서운 극장 을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혜순 | 시인. 1955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났다. 1979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하여, 『또 다른 별에서』 『불쌍한 사랑 기계』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동』 등 13권의 시집과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등 4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명예교수다.

김희정 | 이탈리아문학자.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이탈리아 밀라노가톨릭대학교에서 이탈리아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류인태 | 인문정보학자. 198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인문정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문진영 | 소설가. 198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했다. 2009년 『창작과비평』의 <창비장편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여, 소설집 『눈 속의 거울』과 장편소설 『담배 한 개비의 시간』을 펴냈다.

박세미 | 시인.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내가 나일 확률』을 펴냈다.

박진우 | 사회학자. 1971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프랑스 파리5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 『호모 사케르』를 펴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은선 | 시인.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시집 『가능세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진 필름』 『도움받는 기분』과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펴냈다.

손정훈 | 프랑스문학·문화학자.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예술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학 박물관과 기념관 및 프랑스어권 문화 등으로, 현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승환 | 시인·문학평론가.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문학동네』를 통해 시인으로, 2005년 『현대문학』을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여, 시집 『드라이아이스』 『클로로포름』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비평집 『측위의 감각』 『전체의 바깥』을 펴냈다.

신해욱 | 시인. 197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간결한 배치』 『생물성』 『syzygy』 『무죽영원』, 장편소설 『해몽전파사』, 산문집 『창밖을 본다』 『비성년열전』 『일인용 책』 등을 펴냈다.

유성호 | 문학평론가. 1964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침묵의 파문』 『서정의 건축술』 등과, 『단정한 기억』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근대시의 모더니티와 종교적 상상력』 등 다수의 산문집과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병무 | 시인.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전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동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5분의 추억』 『고단』 『당신은 나의 옛날을 살고 나는 당신의 훗날을 살고』, 산문집 『눈속말을 하는 곳』, 그림동화 『팽귤 단디과 주앙 할아버지』를 펴냈다. 도서출판 국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소 | 문학평론가. 1982년에 태어나,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이은지 | 문학평론가. 1986년에 태어나,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역시 『성인 언어』 『외계의 칸트』를 펴냈다.

장이지 | 시인. 1976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안국동울음상점』 『라플란드 우체국』 『해저의 교실에서 소년은 흰 달을 본다』 등 5권의 시집과 『한대의 공간』 등 3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현 | 시인.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9년 <제1회 박상룡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시집 『22: Chae Mi Hee』를 펴냈다. 정재곤 | 프랑스문학자·정신분석학자.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프루스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랑스 로렌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프랑스 정부 공인 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했다. 저서 『나를 엿보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만화본) 등 30여 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조강석 | 문학평론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경험주의자의 시계』 『이미지 모티폴로지』 『틀림의 기동』과 문학 연구서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 『한국문학과 보편주의』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을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채석진 | 미디어학자. 1974년에 태어나,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미디어 문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저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한국 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문턱의 청년들』 등과 편저 『디지털 미디어와 페미니즘』 등을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제훈 | 소설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7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퀴르발 남작의 성』 『위험한 비유』, 장편소설 『일곱 개의 고양이 눈』 『나비잠』 『천사의 사슬』 『단지 살인마』를 펴냈다.

황유원 | 시인. 1982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 『이 왕관이 나는 마음에 드네』와, 『모비 딕』 『오 헨리 단편선』 등 다수의 역서를 펴냈다.

#### <해외 필자>

루이스 헤이예스-갈린도(Luis Reyes-Galindo) | 사회학자. 멕시코에서 출생하여,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사회학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현재 네덜란드 와헤닝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클레망 베르트-에흐볼(Clément Bert-Erboul) | 사회학자. 1987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온라인 공동체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웹 자료 수집과 처리 방법론 등으로, 현재 벨기에 자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